

#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의 研究

- 類型과 그 社會的 意味를 中心으로 -

夫 良 淑\*

## 目 次

- |                              |                                 |
|------------------------------|---------------------------------|
| I. 序 論                       | 型과 그 特性                         |
| II.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의 特<br>異性 | IV.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의 社<br>會的 意味 |
| III.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의 類      | V. 結 論                          |

## I. 序 論

### 1. 問題提起

아기장수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전설 가운데 하나로서 全國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廣布傳說'<sup>1)</sup>의 대표적인 전설이다. 특히 이 전설은 '폐쇄된 사회상황에서 거부당해야 하는 아기장수의 悲劇'<sup>2)</sup>을 통해 전설의 悲壯美를 淸어화시켰다는 데서 비장미를 산출시킨 傳說 享有者의 意識을 파악할 수 있

\* 국어교육과 4년

1)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p.18.

2) 玄吉彥,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 한국언어문학 17·18합병호, (서울: 한국언어문학회, 1979), p.290.

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기도 한다.

광포전설로서의 아기장수 전설은 濟州島에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濟州島라는 地域이 지닌 歷史的·地理的·社會的·文化的 環境이 韓半島 本土와는 상당히 다른 地域的인 特性이 전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다양한 변이 양상'<sup>3)</sup>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즉 說話는 그 전승 수용 과정에서 개입되는 수많은 傳承 參與者의 共通된 意識을 투영하고 있기에 그 地域住民의 集團意識을 파악할 수 있다.

濟州島 아기장수 전설은 '韓半島 本土'<sup>4)</sup>의 傳說과는 다른 제주 나름의 特異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反映되었다고 믿어지는 제주도의 아기장수 전설을 좀더 구체성을 지니기 위해 '아기장수 전설'이라는 명칭을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sup>5)</sup>이라는 명칭으로 쓰고자 한다.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이 제주 특유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그 特異性이 발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가?

②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에 반영된 전설 향유자의 의식의 양상은 무엇인가?

③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이 지닌 주제의 社會的인 意味는 무엇인가?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통해서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이 제주도 나름의 특이성을 지니며, 濟州島民이 전설에 반영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과 삶에의 적응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前揭論文, p. 290.

4) 이하 '本土'라 한다.

5)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명칭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그 표현된 내용도 다르다. ① '아기장수 전설': 심정섭, 김일렬, 조동일, 하창수, ② '아기장사 전설': 최래욱, ③ '장수 전설': 조동일, ④ '장사전설': 김일렬, ⑤ '장수설화': 장덕순, ⑥ '아기장수형 전설': 현길언. 필자가 이상의 다양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은 이 글의 대상이 바로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II·III에서 그 이유가 규명될 것이다.

## 2. 研究動向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기장수 전설을 他文學 장르와 관련시켜 파악한 경우<sup>6)</sup>
- ② 설화의 특징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경우에 아기장수 전설을 설명한 경우<sup>7)</sup>
- ③ 아기장수 전설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우<sup>8)</sup>

이와같은 論究들은 아기장수 전설 연구의 선구작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 문제들을 다루어 아기장수 전설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데서 의의가 자못 크다.

그러나 이처럼 심화된 연구 속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산출된 전설의 특성과 社會的 意味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여겨져 本稿에서는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을 對象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그 社會的 意味를 파악하고자 한다.

- 6) ① 장덕순, 前揭書, pp. 308~313.
- ②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서울: 知識產業社, 1977), pp. 66~136.
- 7) ①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10, (서울: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 1971)
- ② 金一烈, “說話에 나타난 身分의 葛藤” 語文論叢12, (대구: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78).
- 8) ① 崔來沃,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11, (서울: 한국민학회, 1979).
- ② 최래옥,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서울: 一潮閣, 1981)
- ③ 조봉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경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 ④ 현길언,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 한국언어문학 17·18합병호, (서울: 한국언어문학회, 1978).
- ⑤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弘盛社, 1981).
- ⑥ 河昌株, “아기將帥 傳說의 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81).

## 3. 接近方法

①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특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本土와의 對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토 전설의 기본형을 플롯에 따라 구성하여 제주 전설과 비교·분석하여 그 특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② 特異性은 전설 향유자의 의식의 反映이다. 전설 향유자의 의식의 반영인 전설 各篇들을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世界와의 對決에서 葛藤을 克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類型type'<sup>9)</sup> 분류를 시도한다. 유형의 분석과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作品 內的 自我'<sup>10)</sup>인 '아기장수'와, 英雄의 표상물인 '날개'가 '世界'와의 對決에서 葛藤이 극복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諸類型으로 分類하고자 시도한다. 결국 유형을 분류하면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1〉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제유형

날	개	아 기 장 수	유 형
-	-	-	제 1 형
-	-	+	제 2 형
+	-	+	제 3 형

9) 類型 type에 대한 의미 파악은 다음과 같다.

① Stith Thompson: "독립해서 전승되는 이야기", (장덕순외, 口碑文學概說, 서울: 潮脚: 1971), p. 52. 재인용.

② 조동일: "일정한 구조적 원리가 실현된 양상", (조동일: "영웅이야기의 유형-분류 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 「口碑文學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 1979).

10) 본고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핵심인 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 ① 自我: 사고와 행위의 주체
- ② 世界: 자아와 대립되어 있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
- ③ 對決: 대립 중에서 특히 動的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④ 葛藤: 갈등 역시 동적인 대립을 말하는데, 대결이 계속 달라지는 대립을 말하는 순차적 개념의 것이라면, 갈등은 대립된 것들끼리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지칭하는 並行的 개념의 것이다.

이러한 용어는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에서의 개념에 따라 사용한다.

여기에서 (-)는 자아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이고, (+)는 갈등을 극복하여 승리할 것을 표시한다.

③ 전설은 '때로는 현실적인 좌절과 과멸을 代償하려는 民衆의 꿈이 歷史를 헤집고 들어가 허구를 꾸며낼 수도 있다.'<sup>11)</sup> 따라서 悲劇的 結末로 끝맺던 대부분의 본토 전설과는 달리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현실적 좌절을 거부하고 그 가능성의 상태를 보유하고자 하는 전설 향유자의 숨은 의도'<sup>12)</sup>가 작용한 제주 전설은 바로 제주도민의 강한 歷史的·社會的 意識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이 지닌 주제가 함축하는 사회적인 의미는 바로 전설 향유자인 제주도민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 4. 研究範圍

본고는 현재('85.12月)까지 채록·발표된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13)</sup>

- A. 배락구름
- B. 吳察訪
- C. 金通精 將軍
- D. 洪業善
- E. 坪垵 부대가
- F. 날개돌힌 密陽朴氏

11) 金烈圭, 「韓國의 傳說」, (서울: 中央新書, 1980), p.10.

12) 하창수, 前揭論文, p.10.

13) 일련의 기호 A~R은 임의로 필자가 붙인 것이다.

① A~G: 玄容駿, 「濟州島傳說」, (서울: 瑞文堂, 1976).

② H: 秦聖開, 「南國의 傳說」, (서울: 螢雪出版社, 1976).

③ I~K: 玄吉彥,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弘盛社, 1981).

④ L~P: 濟州道編, 「濟州道傳說誌」, (제주: 濟州도청, 1985).

⑤ Q: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濟州說話集成(1)」, (제주: 濟州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5).

⑥ R: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韓國口碑文學大系9-1,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② 전개 : 얼마없어 그 아이에게 날개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었다. (영웅의 상징물 발견)

③ 갈등 :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본 집안에서는 아이가 장차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 것이라고 여겨 두려워 했다. (영웅에 대한 세계의 갈등)

④ 위기 : 부모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세계의 힘의 위력)

⑤ 결말 :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죽여버렸다. (영웅의 죽음, 작품내적 자아의 일방적 패배)

⑥ 증거물 : 용마가 나와서 울다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龍沼가 생겼다. (地名 傳說로 증거물이 남음)

이 전설의 플롯은 물론 '出生·죽음·再起·2차죽음·龍馬·證示의 6단락'<sup>16)</sup>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 '재기와 2차죽음은 變異에 대한 파생태로서 아기장수의 죽음에 대한 再生의 挫折을 통하여 주인공 장수를 거부하는 상황의 극렬성을 첨예화한 것'<sup>17)</sup>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중적 영웅의 일생'<sup>18)</sup>의 한 양상으로 아기장수 전설의 플롯을 파악하였다.

‘例話 : ‘서울 용마봉 이야기’<sup>19)</sup>

① 증거물 : 서울 위커힐 옆 아차산 최고 봉우리가 용마봉인데 거기서 용마가 나왔다고 한다.

② 발단 : 옛날 산 밑에 살던 어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

③ 전개 : 갓난애가 선반에 올라가 있음을 어머니가 발견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아이를 살펴보니까 아이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④ 갈등 : “이 애는 우리 집이 망할 징조요, 역적이 나면 죽을 것이니”라고 부모는 생각했다.

⑤ 위기 : 벼섬, 맷돌로 어린 것을 눌러 죽이기로 결관을 보았다.

⑥ 결말 : 아이를 찍어눌러 죽였더니, 용마봉에서 용마가 나와 날아갔다.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토 전설은 막연한 시대에 막연한 평민의 집에서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태어남으로써 비극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16) 최래옥, 前揭論文, p.120.

17) 현길언, 前揭論文, p.291.

18)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10, (서울: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1971).

19) 최래옥, 前揭論文, p.160 요약.

悲劇의 結末을 이루어 地名傳說로 고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차 장수가 될 예언물인 날개'를 지녔다는 사실로 인해서 현실을 고수하고 개혁을 싫어하는 保守的인 社會(부모)는 곧 세계의 가치관을 앞세워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것은 곧 세계의 질서에 일방적이며 완전한 敗北를 당하는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모습을 통해 '철저한 비극성'<sup>20)</sup>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본토 전설 대부분이 지니는 특성이라 하겠다.

## 2.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

제주도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화소간의 결합에 따른 많은 파생태가 나타나 본토의 기본형과 다른 상당한 변이'<sup>21)</sup>가 보인다.

① 발단과 ② 전개는 본토의 것과 유사하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지명, 인명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명전설 보다는 人物傳說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③ 갈등: 제주 전설의 특이성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단계이다. 영웅에 대한 세계의 갈등이 있는 것과 갈등이 없는 것으로 양분된다. 이것은 결국 ㉠역적이 되어 장차 집안을 망칠 것이라는 것과,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한 세계의 갈등이 아예 없거나, 영웅의 예언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갈등을 전설에 배태시키지 않는 것으로 양분된다. 이와같이 양분되는 갈등 양상은 본토 전설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갈등이 심하게 존재하는 ㉢의 상태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행할 장수로 여겨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지만, ㉣처럼 아기장수의 '날개'를 보고도 경이로운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양상이다. 이런 갈등 단계의 양분된 양상으로의 변화는 위기·결말·증거물 단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본토와 다른 전설 내용을 형성한다.

④ 위기: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한 세계의 갈등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위기 단계도 양분된다. 갈등이 심하게 존재했던 ㉢의 형태에는 세계의 위력적인 힘이 가해지나, ㉣처럼 갈등이 없던 형태에는 세계의 위력적인 힘이 가해질 필요

20) 前揭論文, p.157.

21) 현길언, 前揭論文, pp.290~306 요약



가 없으므로 위기 단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⑤ 결말: 제주 전설의 특이성이 가장 두드러진 단계이다. 양분된 갈등 단계가 양분된 위기 단계를 낳았고, 이것은 결국 세형태의 결말을 낳았다. 즉 결말 단계는 ㉔갈등이 있음으로써 세계의 위력적인 힘이 자아에게 가해져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죽는 경우, ㉕갈등이 있는 것 가운데서 세계의 위력적인 힘이 영웅의 예언물(반역의 예언물)인 날개에 가해져 날개만 저세당하여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장사'로 변화되는 경우, ㉖갈등이 없으므로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이 경우 능력 발휘 성공 여부는 부차적인 결말이다—의 세가지가 나타난다. 이런 세가지의 결말의 양상은 제주 전설의 특이성으로 다음 III장에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 의해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이런 결과는 또한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이 장사전설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음도 드러나게 한다.

⑥ 증거물: 용소가 생겨 지금도 남아있다는 (i) 지명전설과, 위대한 힘을 지녔던 장사·장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ii)인물전설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서 (i) 유형은 'A베락구릉'과 부분적인 것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이 (ii)인물전설이다. 이것은 결국 ㉒전개의 예고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본토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과 플롯 비교를 통해 살펴본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특이성'<sup>22)</sup>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토 전설은 대부분이 지명전설이고 인물전설은 매우 드문데 비하여, 제주 전설은 'A베락구릉'과 부분적인 지명전설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 인물전설이다. 두번째는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죽음과, 용마의 출현과 함께 용마가 사라짐으로써 전설 향유자의 가슴에 비극적인 결말의 아쉬움을 남겼던 본토 전설과는 달리, 제주 전설은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거나 부분적으로 극복하는 경우를 통해 비극성이 많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토의 전설들이 대부분 인간과 세계와의 갈등·대결에서 인간의 패배 또는 좌절하는 구조임에 비하여 제주 전설은 세계와의 갈등·대결에서 새로운 극복의 방법을 모색, 세계와의 화합을 구하는 비극의 극복이라는 특이한 전설구조'<sup>23)</sup>를 지닌다. 세

22) 현길언, 前掲書에서 이를 파악한 바 있다.

23) 현길언, "제주도의 오누이장사전설", 耽羅文化 創刊號,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1), p. 27.

번째는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날개가 세계의 위력적인 힘에 의해서 거세당한 후 장사로 변모하여 장사전설로 남아 있다는 데 있다. 즉, 제주 전설은 장수전설과 함께 장사전설이 병존한다. 네번째는 전설 향유자인 제주도민의 지역적인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重罪人을 다스리는 最適의 流配地'<sup>24)</sup>라고 여겼던 육지 사람들의 의식은 제주를 賤視하였었기에 여기에 대해 제주도민은 반감과 함께 '제주'라는 지역에 강렬한 憐憫을 느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은 전설에도 뚜렷이 반영하였다.

### Ⅲ.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的 類型과 그 特性

#### 1. 제1유형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제1유형은 작품내적 자아인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 대결하여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함으로써 일방적인 아기장수의 敗北를 그린 유형이다. 평범한 집안에 태어난 비범한 능력의 아기장수를 부모는 장차 역적이 될 인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아기의 성장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른다. 결국 세계의 위력적인 힘을 행사한다. 평범한 아들이 아니기에 자식마저도 구석으로 몰아부쳐 죽음으로 인도했던 평민의 의식이 나타나 있는 유형이다. 기존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평민을 통해서 전설 향유자는 오히려 평범한 집안에서도 능력있는 비범한 자가 태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또한 전설 향유자는 비극적인 결말에서 오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제2유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제1유형의 전설로서는 'A베락구름', 'I강정 김씨 자손', 'N날개돋은 아기장수', 'P날개돋힌 부대각', 'Q날개돋은 아기', 'H드릿장군'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A, I, N, Q, H는 부모가 加害勢力 즉 세계의 위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세력인 데 비하여 P는 왕이 직접 날개달린 아기장수에게 세계의 힘을 가하는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이하다.

24)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특히 濟州島를 중심으로-", 博士學位論文, (서울: 建國大學校大學院, 1982), p. 31.

例話) P. '날개돋힌 부대각'<sup>25)</sup>

① 옛날 李衡祥 목사가 부임하여 제주도 40여리 길을 순력길에 나섰다. 舊左邑 漢東里에 이를 무렵 목사의 순력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

② 목사의 순력길을 방해하는 자는 부리부리한 눈과 몸집을 지닌 채 밥이나 얻어 먹기 위해 상일을 하는 막일꾼이었다. 60여명이 힘을 모아도 끄덕하지 않는 연자매 밑들을 움직이는 장사를 보고 이형상 목사는 이 사실을 御前に 보고했다. 어전에 올라간 夫氏 장사는 한 끼에 보리쌀 스무 말을 먹어야 겨우 배가 차고 물 세 동이를 먹는다고 말했다. 이에 임금은 형방을 시켜 부씨 장사의 옷을 벗겨 보니 제주에서 온 부씨 장사의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혀 있었는데 그것을 새끼줄로 허리에다 딱 붙게 잡아 묶어 있음을 보고 뒤로 나자빠진다.

③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제주에서 온 장사를 살려둘 경우 제주에서도 용마가 태어나 차진들을 모두 죽인다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④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이에 죽일 계획을 몰래 세우고 이를 지시했다. 무쇠로 만든 상자에 담아 바다에 던져버리기로 하고, 그 친척과 제주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 대각 벼슬을 내려 위장했다. 제주 사람들은 벼슬도 받고 굶주림도 면할 俸祿을 받게 된 것에 기뻐하며 부대각을 기다렸다.

⑤ (부대각을 무쇠 상자에 담아 바다에 던져버린 후) 제주 평대리에 도착한 나졸들은 거짓으로 대각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고 칙령만 전하고 돌아갔다.

⑥ 침통해 하는 어느 친척의 꿈에 부대각이 나타나 날개돋힌 죄로 무쇠상자에 담긴 채 바다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 그 원한을 큰곳과 마당(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니, 이후 부씨 집안에서는 祖上본풀이를 창하고 서우갯소리로 영혼을 흥겹게 놀린다. 그리고 칙령만 도착한 포구를 '배들인개'라고 부른다. [가첩: 필자]

① 단락은 시간과 공간 배경이 설정되어 있고 주인공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제1유형의 대부분이 '막연한 옛날'인 데 비하여 구체적인 세계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단락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힘센 장사가 먹고 살기 위해 60여명도 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아인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영웅적인 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여기에 대해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25) 제주도編, 「濟州道傳說誌」, (제주: 제주도청, 1985), pp. 193~195 요약

③ 단락에서 작품내적 세계의 정체는 <임금과 벼슬아치>들로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다. 힘센 장사가 날개가 달려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질서와 체계를 파괴할 인물로 단정하고 그 질서를 고수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거짓-까지 동원하는 적대세력의 성격이 드러난다.

③ 단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한 세계의 대결과 억압이 전설 향유자에 의해 잠시 '유예'<sup>26)</sup>되어, 일을 할 수 있는 힘센 장사가 될 때까지 날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세계인 기존 사회의 질서가 '濟州'라는 지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에서 장수가 나면 용마도 나게 되어 장차 임금이나 벼슬아치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그 인물될 장수를 죽여야 한다는 임금과 벼슬아치의 지역적인 편견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제주가 인물이 날 王候之地이기에 斷穴을 했고 그래서 인물이 나지 않게 되었다는 '고종달형 전설'<sup>27)</sup>에 많이 보인다.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거부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모나, 改革을 거부하고 현실을 고수하고자 하는 왕자 벼슬아치와 대결해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 밖에 없던 날개달린 아기장수에게 전설 향유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세계-기존 사회 질서, 본토, 힘을 갖고 있는 제충-에 적대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④ 단락은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적대세력이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작품 속에서 드러낸다. 제주를 벗어난 상황이기에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우호세력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나마 미약한 힘을 지닌 그의 우호세력은 그를 섬에서 기다릴 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자아의 일방적인 패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⑤ 단락의 세계가 지닌 거짓된 모습은 바로 세계가 지니는 不條理이다. 사실을 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예상되므로 무지하고 순진한 제주 백성에게 거짓으로 위장하여 애기함으로써 전설 향유자를 더욱 아프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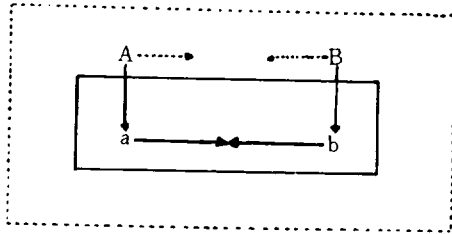
⑥ 세계에 일방적인 패배를 당한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그 원한을 달랠 방법을 꿈에서나마 제시하여 자신의 영혼을 달래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뒤늦

26) 현길언, "傳說의 變異와 그 意味", 한국언어문학17·18합병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1979), p.297.

27) 고종달형 전설은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는 斷穴傳說이다.

계 세계의 거짓된 모습<sup>28)</sup>을 발견한 친척-우호세력-들은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아쉬워하며 노래를 부른다.

제1유형의 '자아와 세계의 대결 관계'<sup>28)</sup>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는 작품외적 자아인 전설 향유자, B는 작품외적 세계, a는 작품내적 자아인 날개달린 아기장수, b는 작품내적 세계인 왕과 버슬아치들이다.



여기서 A는 a에, B는 b에 크게 반영되어 나타나기에 a와 b의 극단적인 대결(→←)은 흥미로우나 A의 힘이 미약하기에 곧 B의 힘이 강력한 것이므로 a와 b의 대결은 a의 일방적인 패배가 당연한 귀결이 될 수 밖에 없다. 작품내의 우호세력의 힘도 미약하고 'A베락루릉'처럼 부모가 기존 사회의 대변자가 되어 날개달린 아기장수에게 죽음을 가하는 상황이 극렬하게 표현된 것이 제1유형이다.

그러나 제주도 전설은 이 비극적인 제1유형의 결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질서가 제주도민의 소망과 기대를 지닌 아기장수를 억압하고 장수를 거부했던 현실적인 부모·관·임금을 다시 거부함으로써 아기장수를 다시 수용하는 마음'<sup>29)</sup>을 지니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한층 더 절실하다. 여기에서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큰 변화는 예상되는 결과이다.

貧賤한 가정에서 태어난 비범한 능력 소유자인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속한 사회는 능력보다는 身分制度라는 階層的 位階秩序가 있는 사회이기에,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전설 향유자의 대변인이다. 그러나 전설 향유자의 소망은 '제도의 끈질김'<sup>30)</sup> 속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본 제1유형은 끝내 일방적으로 패배하여 좌절하는 날개달린 아기

28) 조동일, 前揭書, p. 92참조.

29) 현길언, 前揭書, p. 137.

30) 하창수, 前揭論文, p. 32.

장수를 통해 세계의 부당성과, '지배계층과 전설 향유자의 극단적인 분리 현상'<sup>31)</sup>을 엿볼 수 있다.

## 2. 제2유형

제주의 날개달린아기장수 전설의 제2유형은 아기장수의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와 세계의 갈등이 그려져 있어 제1유형과는 상당히 다르다. 제1유형의 자아인 날개달린아기장수가 일방적인 패배를 지님으로 해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전설향유자는 아기장수의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가 끝내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할 수 없더라도 아기장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심정에서 아기장수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승리케 한다.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완전히 수용하여 그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세계의 부당한 힘의 위력을 체험했던 전설 향유자는 결국 인간적으로 '아기장수'의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 극복을 먼저 기대한다. 비범한 능력의 원천인 날개를 잃는다 해도 인간적인 삶만은 누리기를 기대하는 전설 향유자의 간절한 마음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제2유형의 전설은 영웅의 예언물인 날개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패배하여 결국 거세당함으로써 아기장수가 장사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활동하는 전설이다.

제2유형에 해당하는 전설은 'D홍업선', 'E평대 부대작', 'F날개돌힌 밀양박씨', 'G한연 한배임재', 'J양태수'이다.

예화) 'G한연 한배임재'<sup>32)</sup>

① 구좌면 김녕리에 있는 '거옥대우영'이라는 韓氏墓는 장군의 穴을 지닌 蜈蚣穴이다. 이 묘를 쓴 후 밤마다 소란이 있자 동네에서는 惡將軍之墓라고 돌에다 새겨 세웠더니, 묘의 영기가 눌러져 조용해졌다. 그후 김녕 한씨 집안에서는 이 묘의 영기를 받아 보통 아이보다 크고 풍모가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

② 구덕에 눕혀둔 아이는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 눕혀둔 채로 있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몰래 문틈으로 아이의 동정을 살폈더니 아이는 구덕에서 뛰어나와 겨드랑이의 날개를 찢고 천장을 날아다녔다.

31) 前掲論文, p. 26.

32) 현용준, 「濟州島傳説」, (서울:瑞文堂, 1975), pp. 185~191요약

③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관가에서 알면 역적으로 몰려 三族이 멸한다고 생각했다.

④ 아버지는 손가락을 불에 달구워 날개를 지져버렸다. 날개를 그냥 두면 장차 장수가 될 것이 뻔하지만 만일을 생각해서 아까와하면서도 지져버렸다.

⑤ 그후 아이는 조용했지만 힘이 남달리 세었다. 큰배를 지어 고기도 낚고 장사도 했는데 이런 그를 보고 '한연 한배임재'라고 불렀다. 어느해 무곡(쌀)을 싣고 오는데 水賊을 만나 쌀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으나 그는 오히려 수적의 간장을 서늘하게 하여 이겼다. 이후 제주 사람들은 수적을 만나면 '김녕 한연 한배임재 배'라고 하여 오히려 수적을 도망가게 했다. 한번은 육지 사람 50여명이 힘겹게 닻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가소롭게 여겨 그것을 혼자 거뜬히 해내니 육지 사람들은 놀랐다. 이를 보고 벽파진 사람이 관가에 역적이 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조사해 보니 제주에서 進上을 잘 올리는 한연 한배임재이므로 오히려 후한 상을 주었다. [가첩:필자]

① 단락은 시간적 배경이 생략된 채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고, 장군의 穴의 영기를 받은 비범한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태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단락은 아기의 위치 변화에서 의심을 품은 어머니에 의해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신체적 특징이 발견되는데 날개 발견자의 대부분이 어머니인 본토 전설과 유사하다.

③ 단락은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한 기존 사회의 관념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제1유형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민중의 항거가 거듭 패배한 역사적 경험의 집약'<sup>33)</sup>인 것이다.

④ 단락은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해서 직접 죽이거나 신체적 특징을 노출시켜 가해세력-지역 주민, 官-을 불러들이지 않고, '영웅이 표상이며 비범성의 근원인 날개'만을 제거하고 있다. 이것은 날개가 지니는 의미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세계는 평범한 인물이나 장사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비범한 능력의 근원인 날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여겨 강력히 대처하기에 그 힘에 날개는 세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거세당하는 것이다.

33) 조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경부: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0), p. 351.

④ 단락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관념이다. 장차 장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이 멸한다는 평민의 소심함이 그대로 숨쉬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당하기보다는 장수가 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인간으로 현실의 제도와 규범 속에 잔존하고자 하는 하층민의 '현실 한계의 인식'<sup>34)</sup>을 볼 수 있다.

⑤ 단락은 날개를 거세당한 아기장수가 비범한 영웅은 될 수 없었지만, 남보다 힘이 센 장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웅으로부터 평범한 인간으로 추락시킨 세계의 일부인 부모의 갈등은 바로 자식에 대한 애정과 날개가 달려 있는 아기를 죽여야 하는 기존 가치관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었고, 결국 부모는 비범성의 징후만을 제거하고 자식을 보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1 유형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⑤ 단락에서는 '섬놈이 무슨 힘이 있으랴'라고 생각하는 육지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50여명이 힘겹게 움직이는 닻을 거뜰히 움직이는 것은 전설 향유자인 제주도민에게 섬사람의 힘이 강함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사람에게 힘이 있으면 모두 역적이 된다고 보는 육지 사람의 인식을 임금의 후한 상으로 오히려 깨끗이 씻어내어 제주인에 대한 강한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2유형은 자아인 아기장수의 거드람이에 달린 날개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세당하기는 했어도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일방적으로 패배했던 제1유형과는 달리 부분적인 패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립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제2유형 역시 장수의 좌절이 보인다. 장수의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장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장수가 아닌 장사로서 만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장수의 좌절이다. 그러기에 부모와 주위 사람 즉 전설 창조자와 향유자에게 아쉬움을 주고 '장수' 아닌 '장사'들에 대한 연민은 바로 제주 사람 자신들에 대한 연민이며 불만<sup>35)</sup>이기에 아쉬기만 하다. 한편 제2유형은 규범과 제도 속에서 잔존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바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사로서 뜻을 펴 살아가는 '삶의 진지성'<sup>36)</sup>은 행정·정치·문화의 불모지에서도 곳곳이 살아야 하는 섬사람의 힘찬 삶의 한 양식이라 하겠다.

34) 하창수, 前揭論文, p. 35.

35) 현길언, 前揭書, p. 137.

36) 前揭書, p. 161.



## 3. 제3유형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제3유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출생·성장하여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세계와의 대결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그 능력을 발휘하여 장수가 되기는 하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좌절함으로써 끝을 맺는 이야기이다. 자아가 세계와 대결해서 완전히 갈등을 극복하여 승리는 하였지만 전설이 歷史的 事實을 수용함으로써 결말은 장수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양상이 된다.

제3유형의 전설로서는 'B오찰방', 'C김통정', 'K이재수'를 들 수 있다.

예화) 'C김통정 장군'<sup>37)</sup>

- ① 고려 때, 한 과부가 지렁이가 변한 남자와 通交하여 아들을 낳았다.
- ②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혀 있었고, 거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돋혀 있었다.
- ③ 과부는 이러한 사실을 일체 숨기고 아이를 고이 길렀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통정이라 불렀는데 이 아이가 김통성이다.
- ④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리던 김통정은 三別抄의 우두머리가 되어 진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와 토성도 만들고 백성을 다스리며 '해상왕국'을 만들었다. 김통정은 세금으로 재 닦되와 빗자루 하나씩을 받아 이것을 이용해 안개를 만들어 적에게 들리지 않았다. 어느 해 도술에 능한 김방경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김통성을 잡으러 오니 연막로 막아보았으나 김방경에게는 안되자, 아기엄개만을 들여놓지 못한 채 사람들을 성안으로 들여놓고 성문을 잠갔다. (화가 난) 아기엄개는 김방경에게 성의 철문을 여는 방법과 날개달린 김통정을 잡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 ⑤ 도망가던 김통정은 모기와 새로 변한 장수에게 모가지가 잘려 죽었다.
- ⑥ 죽으면서 김통정은 자기 백성이 먹을 생물을 鞭 신은 채 바위에 남겼다- 지금은 '뺨부리', '뺨자국물'이라 부른다-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 아기엄개를 발로 차 죽였다. 김방경은 김통정의 부인 또 죽이니 매새끼 아홉마리가 죽어 떨어지고 그 피가 일대에 퍼져 붉게 물드니 '붉은 오름'이라한다. [가림:필자]

37) 현용준, 前揭書, pp. 107~112요약

① 단락은 과부인 어머니가 지렁이와 通交하여 김통정을 낳았다는 출생담이다. 동물과 交媾하여 비범한 인물이 출생하였다는 이야기는 ‘甄萱傳說’<sup>38)</sup> ‘百濟武王出生譚’<sup>39)</sup> ‘崔致遠說話’<sup>40)</sup> 등에서도 볼 수 있다.

② 단락에서는 아기에게 날개와 함께 비늘이 돌아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③ 단락은 아기의 비범한 신체적 특징을 어머니가 은폐하여 비범한 징후와 능력을 지닌 채 성장한다는 점에서 제1유형·제2유형과 상당히 다르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기장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당시의 보편적인 윤리’<sup>41)</sup>를 무시하고 禁忌視하던 날개까지도 수용하는 어머니의 대담성이 엿보인다.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강력한 우호세력을 얻음으로써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했고—아예 갈등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르렀다.

④ 단락은 역사적인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 역사적인 인물인 김통정은 몽고와의 긴 싸움에서 고려가 화친하는 정책을 벌이자 이에 대항하며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와 지속적인 항쟁을 했던 인물이다. 고려에 대항함으로써 고려는 김통정을 반역장수로 여기고 그를 죽였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게 전설에서는 김통정을 반역장수가 아닌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재와 빛자루를 받는다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 샘물을 마련한다는가, 국가를 침범한 몽고라는 외적에 대해 싸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민중들은 그를 반역장수가 아닌 民族的·民衆的 英雄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신돌석’<sup>42)</sup>도 국가에는 반역장수였으나 대외세력인 일본과 싸운 인물이라는 데서 민족적·민중적 영웅이라 하겠다.

⑤ 단락은 예기치 않던 사태로 인해 날개달린 아기장수 김통정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아기업개를 남겨둠으로써 전설에서 보여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부딪쳐 당황하거나 왜소해지는 전설적 인간관’<sup>43)</sup>이 드러난다. 역사적 사실에

38) 一然, 三國遺事, 卷第二 「後百濟 甄萱」

39) 前揭書.

40) 崔孤雲傳

41) 현길언, 前揭書, p. 140.

42) 조동일, 前揭書, pp. 350~362 요약

43) 장덕순외, 前揭書, p. 45.

서의 죽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전설 향유자의 마음은 바로 영웅에 대한 최후까지의 신념의 표현이라 하겠다.

⑥ 단락은 전설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단락으로 지역의 유래담이 설명되어 있다. 지역의 유래담에도 영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의 비밀을 폭로시킨 아기업개를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설 향유자는 당연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3유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하여 온전한 날개달린 장수로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비록 능력 발휘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좌절함으로써 전설의 비극적인 결말이 보이지만, 이 비극은 제1유형의 철저한 비극이나 제2유형의 인간 의식의 비극과는 다른 ‘歷史의 비극’인 것이다.

장수를 그리며 살았던 민중의 꿈은 그 장수가 국가에는 반역죄인이라는 엄청난 인물이었다 해도 민중 자신들에게는 장수의 꿈을 이루어준 긍정적인 인물로 여겨졌기에 민족적이며 민중적인 영웅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외세의 침입에 대한 투쟁과 외세와 결탁한 개경 정부에 대한 저항을 한 김통정에게 날개를 지니게 하여 비범한 능력을 발휘케 한 것은 전설 향유자의 당연한 의식의 소산이다. 역사가 그를 좌절하게 하였으나 전설 향유자는 자신의 믿음을 한층 심화시켰다.

제3유형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한 날개달린 아기장수에 대한 세계의 양분된 평가가 내려지는 유형이다. 지역적인 영웅—오찰방—이나 민족적인 영웅—김통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과, 육지 사람들의 무력함과 지배층(세계)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서 반역죄인으로 취급된 것이 그것이다.

한편, 제3유형에서는 자아가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오찰방은 국고를 훔치는 도둑을 잡아 국가의 근심을 더는 행동을 하였고, 외세에 대한 저항을 굽히지 않던 김통정의 행동은 바로 세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자아가 세계와 화해·화합하고자 모색하는 것이다. 비록 千金賞에 萬戶를 봉하겠다는 세계의 약속이 오히려 역적으로 몰았다가 찰방 벼슬에 머무르게 한 것이나, 반역 죄인으로 모는 것은 아직 세계와의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와 화해·화합하고자 하는 영웅의 심리는 바로 전설 향유자의 의식이다.

#### 4.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세 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출생하여 세계와 대결하는 가운데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좌절함으로써 성장은 멈추고 죽음으로 완결되는 이야기이다.

제2유형은 아기장수의 거드랑이에 달린 날개가 비범함의 원천이기에, 세계와의 대결은 그 갈등을 극복하는 아기장수와 함께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날개가 거세당하는 유형이다. 날개가 달린 아기장수는 평범한 장사로 안주한다.

제3유형에서는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여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하지만 영웅과 역적이라는 이중적인 평가를 통해 능력 발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Ⅳ. 濟州 날개달린 아기將帥 傳說의 社會的 意味

#### 1. 身分的 社會에 대한 抵抗

평범한 가계에서 태어난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평범하게 태어나지는 않는다. 즉 '自發地生的인 出生觀이 아닌 人爲地生的인 出生觀'<sup>44)</sup> - 산신 기구, 장군지혈의 영기 받음, 지렁이와 通交-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비범한 인물의 출생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에 있다. 평범한 가정의 비범한 인물이기에 세계는 강력한 기존 사회 질서로 대처한다.

날개는 '하늘을 날던 새의 퇴화이고 영웅 남성의 퇴화 내지 거세'<sup>45)</sup>이기에 인간 세계에서 보면 '영웅의 예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날개가 부지의 실수로 뜻밖의 세계에 드러남으로써 이해하기 힘든 세계와 대립해야 하고 그 세계

44) 김열규, 「韓國民俗과 文學研究」(서울: 一潮閣, 1975), p.69.

45) 최래옥, 前揭論文, p.134.

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탄핵의 시위’<sup>46)</sup>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 대결해야 하고, 세계가 그를 탄핵하려는 것은 바로 이 비범함 때문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계층적 한계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비범한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없다. 자신의 비범한 능력에 의해서 신분적 상승이나 가치로운 일을 성취하고자 하나 세계는 규범과 제도가 견고하고 더불어 부당한 방법마저 동원하기에 ‘장차 역적이 될’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세계와의 대결을 통해서 상층의 정당화하고 신성화한 제도와 이념의 부당성과 모순성을 노출시킨다.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대개가 하층민 출신—오찰방은 중인 계층인 듯하다—이기에 더욱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상승하고자 하나, 그들의 소망을 상층의 압력과 하층민 상호간의 알력—부도·동민—이 무너뜨린다. 이에 좌절하는 날개달린 아기장수는 신분제 사회의 희생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전설 향유자는 그를 통해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있다.

## 2. 섬에 대한 憐憫

지리적·역사적으로 불모한 제주 땅에서 수없이 패배하며 살아왔던 제주도민에게 있어 섬은 아픔이었다. 그래서 불모한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론적으로 인식하며 살았기에 ‘선문대할망’<sup>47)</sup>과 같은 체념하는 이야기가 제주도에 많이 전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나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욕구에서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을 향유했다.

지리적인 불모성에 오는 아픔과 함께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장차 인물이 나면’ 하는 생각에서 자신들의 아픔을 전설 속에 승화시켜 그것을 통해 다시 아픔을 카타르시스시켰다.

섬놈에 대한 천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다. 물질적

46)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이윤기譯, 千의 얼굴을 가진 英雄, (서울: 平旦文化社, 1985) p. ]

47) 선문대할망 전설 역시 제주에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섬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겹쳐 있어 있지만 결국 섬에 안주할 수 있는 결정론적인 운명관이 보이는 전설이다. 한편 女傑傳說로 제주 여성의 모습도 읽을 수 있다.

으로도 가난한 섬사람에게 정신적으로까지 확대하는 육지사람들을 제주도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섬사람이 무력한 사람이 아님을 보이고 싶었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섬놈의 힘의 위력을 과시케 했다. '끊임없는 좌절의 반복 속에 한 인물의 이야기지만 모든 도민들의 이야기로서 한 세대 한 지역의 정신적 역사를 대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물전설은 '歷史意識'이라 할만한 것들을 지니게 된다.'<sup>48)</sup> 과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섬놈의 기질을 보이고, 그 속에서 제주를 느낀다.

제주도민에게 있어 섬에 대한 연민을 지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본토와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정에 대한 과중한 공납, 목민관에 의한 수탈 등이 본토라는 개념으로 표상화된 것'<sup>49)</sup>이기에 본토는 야속한 존재로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은 自尊心을 일깨우며 본토에 대한 굴복이나 패배를 쉽게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대결에서 승리하는 전설을 만든다. 이것은 바로 전설 향유자의 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심리를 '카타르시스'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 3. 世界와의 和解·和合 陝索

'민중의 저항과 좌절의 역사적 체험'<sup>50)</sup>을 담은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바로 현실의 고통을 덜어줄 인물을 고대하는 민중의 염원과 심리 속에서 형성된 전설이다. 그러나 이런 민중의 소망과는 달리 사회는 비범한 인물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므로 결국 '對決'이라는 운명적인 판가름만을 기다리며 아기장수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즉 세계는 날개달린 아기장수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는 태도로 아기장수의 적대 세력임을 표시한다.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적대세력과의 대결은 용이하지 않았고, 아기장수의 죽음이라는 당연한 결말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전설 향유자의 현실 적응방법에 따라 비범한 날개만을 제거하든가 혹은 우호 세력으로 하여금 은닉케 하는 것은 바로 전설 향유자의 세계에 대한 삶

48)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서울: 새문사, 1980), p. 35.

49) 任弘宣, "濟州島 說話에 드러난 濟州島民의 意識 研究", 제주교대논문집 13집, (제주: 제주교육대학, 1982), p. 21.

50) 沈晶燮, "傳說的 文學的 構造", 文學과 知性, 제8권 제1호,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7, 2).

의 적응 방법이다. 세계는 온갖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무지한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죽인다. 그것은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세계의 이러한 태도에 전설 향유자는 오히려 세계와 심화된 대결보다는 화해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닌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즉 해적선을 격파한다든가 -J. 양태수-, 국고를 훔치는 도둑을 잡는 등 -B. 오찰방-의 행동으로 구체화 된 것이 그것이다.

제1유형과 같은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완전한 패배를 제2유형의 부분적인 패배로, 제3유형의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승리로 바꾼 것은 전설 향유자의 의지였다. 물론 장수가 아닌 장사가 되든가 장수로서 뿐만 아니라 역적의 이름으로 좌절하는 아픔을 느끼지만 그것은 제1유형의 비극과는 한참 동떨어진 비극이라 하겠다.

세계 현실과 타협, 화해하고자 하는 태도는 바로 험한 세파와 싸워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제주도민의 삶의 한 양식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양식은 바로 '삶의 진지성'이라 할 수 있다.

## V. 結 論

지금까지의 논술을 통해서 얻은 바를 요약해서 結論으로 삼는다.

① 제주도는 지리적·역사적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본토와는 다른 전설의 내용을 갖는다. 그것은 제주 전설의 특이성이라 할 수 있는데, 특이성이 발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대부분이 인물 전설이다.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그 갈등을 非克服, 部分的克服, 完全克服의 형태를 보이므로 비극성이 많이 극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수전설과 함께 장사전설로 변화한 형태가 병존한다. ㉣제주도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이 깊게 표명되어 있다.

②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작품내적 자아인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 대결하는데 이때 이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유형은 본토의 대다수 전설과 유사한 것으로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 대결해서 그 갈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일

방적인 패배 곧 죽음으로 완결되는 가장 비극적인 유형이다. ㉠제2유형은 비범한 날개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지 못하여 날개가 거세되지만, 아기장수는 갈등을 극복하여 장사로 변화하여 삶을 영위하는 유형이다. ㉡제3유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갈등을 극복하여 성장하지만 능력 발휘에 있어 성공하지 못하여 좌절하는 유형으로 역사적 사실이 개입되어 있는 유형이다.

③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전설 향유자인 제주도민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 속에 숨은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기존사회인 신분제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을 지니고 있다. ㉣지역적인 편견을 많이 받던 전설 향유자의 아픈 마음을 전설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 즉 섬-제주도-에 대한 강한 연민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적대적인 사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산 제주도민의 삶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5.
- \_\_\_\_\_, 「韓國의 傳說」 中央新書, 1980.
- 任弘宣, “濟州島 說話에 드러난 濟州島民의 意識 研究”, 「제주교육대학논문집 13집」, 1982.
- 張德順外,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 「濟州說話集成(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濟州道編, 「濟州道傳說誌」, 제주도청, 1985.
-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10」, 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1971.
- \_\_\_\_\_, “영웅이야기의 유형-분류 방법 모색 위한 시도”, 「口碑文學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_\_\_\_\_,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 \_\_\_\_\_,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 \_\_\_\_\_,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76.
- 崔來沃, “아기장사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11」 한국민속학회, 1979.
- \_\_\_\_\_,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 河昌侏, “아기將帥 傳說의 研究”, 부산대 碩士學位論文, 198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玄吉彥, 「전설의 變異와 그 意味」, 「한국언어문학17·18 합병호」, 한국언어문학회, 1979.
- \_\_\_\_\_,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_\_\_\_\_, “제주도의 오누이장사전설”, 「耽羅文化 創刊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 玄容駿,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이윤기譯 「千의 얼굴을 가진 英雄」 平旦文化社, 1985.

〈본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내용〉

- ①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學術調查報告書」 제5집, 1976.  
-社會背景 方言 說話 地名 遺物·遺蹟 民謠 信仰-
- ②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學術調查報告書」 제6집, 1977.  
-社會背景 方言 地名 說話 遺物·遺蹟 民謠 信仰-
- ③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學術調查報告書」 제7집, 1982.  
-社會背景 方言 民謠 說話 信仰 地名-
- ④ 南濟州郡 安徳面 徳修里：「學術調查報告書」 제7집, 1982.  
-社會背景 方言 民謠 說話 俗談 信仰 遺物·遺蹟-
- ⑤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學術調查報告書」 제8집, 1984.  
社會背景 方言 民謠 說話 俗談 信仰 歲時風俗-

